

# 전남도 9월부터 '제2청사 시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일 오후 9월 개청을 앞두고 있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건설 현장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일자리투자유치국·문화융성국 등 4개 실국 320명 근무 오늘부터 사무실 이전...김영록 지사 "동부권 발전 초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사가 오는 9월 1일 개청한다. 3만24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3000㎡ 규모로 지어진 신청사에는 전남도청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 등이 배치된다. 10일부터 사무실 이전, 인원 배치를 시작해 21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7일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부지역본부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계자를 격려했

다. 김 지사는 "동부청사는 이 일대 도민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업과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져 전남 동부권이 새롭게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건립사업은 2018년 9월 시작됐고, 김영록 지사의 동부지역본부 4개 실국 확대 공약에 따라 지난달 16일 전남도의 회 심의 통과로 조직개편도 확정됐다. 신청사 건립 면적은 1만3000㎡로 당초보다 3000㎡ 늘어났으며 근무 인원은 320명으로 80명

확대됐다. 지역민을 위해 청사 주변을 성토해 녹지를 확보하고 큰 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잔디광장과 사계절 꽃피는 정원 등 명품 숲을 조성하고 있다. 청사는 우주선을 모티브로 건물과 도심 정원 등이 조화로운 미래지향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건물 중앙에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아트리움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새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설계했다. 동부권 주민이 전남도 본청 방문 없이 기본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민원실과 다목적 대강당, 북카페, 숲 심다 등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착수

### 기획용역 업체 선정...내년 2월까지 타당성 분석·로드맵 수립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주한 2단계 사업 기획용역 업체로 프라이스위터 하우스퍼프스(PwC)사가 선정됐다.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이 참여하는 기획용역은 오는 21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목표로 ▲1단계 성과분석과 2단계 고도화 필요성 분석 ▲2단계 비전과 로드맵 수립 ▲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의견수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전문가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실무

위원회, 분과별 워킹그룹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인공지능산업위원회 회의를 열어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필요한 의견도 수렴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1단계에 이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확보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하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은 세계 10위권 최첨단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등 기반 시설 구축과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핵심 시설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오는 10월 개관하고, 실증·창업동은 내년 완공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백운교차로 출·퇴근시 우회

### 지하철 공사로 12일부터 교통 전환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따라 12일부터 남구 백운교차로 구간의 단계별 교통 전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백운교차로 구간 복공만 설치공사로,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되었으며, 광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교통량이 많은 백운교차로 공사 중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차량 유도 안내표지만, 경고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모범신호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화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 전국 5곳 내년 6월까지 캠퍼스 구축...전문 인력 年 2000명 양성

전남도는 화순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선정돼 면역·유전자 치료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국제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국가 간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 공고 후 이날 화순과 인천 송도, 경기 시흥, 충북 오송, 경북 안동 등 5개소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6월까지 캠퍼스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총괄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재단을 설립해 연간 2000명의 국내외 교육생을 5개 지역 캠퍼스에서 분산 교육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이 그동안 화순 백산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면역·유전자 치료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 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는 백산 연구개발부 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백산산업특구의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 의약연구센터가 전담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구 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생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생물의약품연구센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교육생은 교육 후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벌써 국내외에서 교육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은 향후 100년을 책임질 글로벌 바이오산업에 기여할 인재 육성의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남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고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전남 바이오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국적 바이오 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을 했으며 4월과 5월에는 지역 대학 및 연세대 K-NIBRT사업단과 협약해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졌다. 또 지난 5월부터 취업준비생 24명에게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지역 대학생 등 200여 명에게 실습교육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0월에는 연세대 K-NIBRT 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시아권 외국인 교육생 40여 명에게 백산 생산 공정 현장교육을 할 예정으로, 명실공히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키워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여수 울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산수·월산·조화리 일원 3년간

전남도가 '여수 울춘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울춘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울춘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울춘지구 개발사업은 일차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치 '미래형 복합신도시 울춘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승재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장흥에 '창업행복노년' 스마트타운 조성

### 청년 창업 지원·어르신 정신건강 관리

행정안전부의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장흥 '건강 창업행복노년'이 선정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 '건강 창업행복노년'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어르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타운으로 조성된다. 또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55개 지자체가 신청해

장흥을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장흥의 생물의약품산업 기반 '건강 창업행복노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80%와 군비 20% 등 총사업비 1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창업으로 활기찬 청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만들기'를 목표로 장흥 생물의약품산업 기반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센터를 구축해 창업 상담을 하고, 멘탈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과 천연오일 발향 키오스크를 제작 보급해 노인 정신건강 관리를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